

# 코로나19에 멈췄던 중소기업 지원 재개

###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수출 바우처' 참여 기업 모집 광주상의, '찾아가는 맞춤형' FTA활용지원사업 시행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멈춰있던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이 잇달아 재개되고 있다. 경기하락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 중소기업들은 정부와 각 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9일까지 중소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지원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 바우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수출규모별로 지원하는 성장바우처와 브랜드 K·K국제자유특구·스마트공장 등 혁신바우처로 나뉘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기준 30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가 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70%까지 지급된다.

바우처로 디자인개발, 전략컨설팅, 해외고객인증, 해외시장조사, 국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 진출 준비활동과 온오프라

인 해외진출 마케팅 등 1200여개 수행기관 6000여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시행됐다.

올해 첫 시행되는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사업은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거쳐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에 14개 세부 프로그램을 바우처 방식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는 정부가 지원금을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하고 기업은 바우처 한도내에서 컨설팅, 기술, 마케팅 분야 세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받는 방식이다.

1차 사업에는 광주 28개사가 선정돼 10억 원을 지원받고, 전남은 48개사가 15억 원을 지원받는다. 2차 사업은 이달 중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16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사업 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협업사업 모델을 신규 개발하거나 기존 협업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등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사업진단부터 실행계획까지 제공하고, 조합당 최대 1500만원(자가부담금 10% 별도)한도로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협회, 스타트업과 함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기업도 모집한다.

중소기업계가 포스코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5년간 총 200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과 500개 스마트공장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올해는 100여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유관기업(검사키트, 마스크, 방호복 등 방역물품 제조기업) 및 피해기업 우선선정 등 우대한다.

참여기업은 지원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60% 내에서 최대 6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조달 입찰 시 가점 부여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업공제사업자금 대출금리도 한시적으로 0.6%포인트 인하한다.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해외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온라인 화상수출상담실'을 설치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무료 운영도 진행한다.

광주상공회의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광주FTA활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FTA활용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12개 분야 42개 컨설팅 사업을 위주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광주상의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2020년 광주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관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정 근로시간 및 적정임금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 등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를 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 11월까지 6개월간 전문 컨설턴트가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 집값 뚝뚝 떨어진다

### 부동산 규제·코로나19 영향 아파트 매매가 11주 연속 하락

광주 집값이 또 떨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거래감소 등이 겹치면서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11주 연속 하락했다.

14일 한국감정원의 '2020년 6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각각 전주에 비해 0.12%, 0.09% 상승했다.

이와 달리 광주는 같은 기간 매매가격이 -0.02%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 3월 말부터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11주 연속 하락이다.

광주는 경기 위축 우려와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연속 하락세 유지되는 가운데, 남구(-0.04%)는 양림·주월동 구축 위주로, 동구(-0.01%)는 산수·소태동 중형 위주로 하락했다. 광산구(0.00%)는 지역별로 혼조세 보이며 보합세로 전환됐다. 전세가격은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은행, 지역 소상공인에 연 1% 수준 대출 판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나주시와 협약을 맺고 지역 소상공인에 연 1% 수준 대출을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나주시와 광주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은 지난 11일 나주시청에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대출 대상은 나주시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으로, 대출 규모는 총 200억원이다.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내, 기

간은 2년이다.

나주시에서 2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고객은 실제 1% 이내 수준의 대출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나주시역 광주은행 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보증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시점 보증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기업·기관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늘렸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기업·기관들이 본사 이전 이후 자사 소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나온 올해 1분기(1~3월) 임직원 현황을 분석해보니 한국전력 등 13개 기관의 비정규직 직원 수는 2121명으로 집계됐다.

1분기 현재 비정규직 직원 수는 한전 KPS가 1374명으로 가장 많고 한전KDN 390명, 한전 135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3명, 한국농어촌공사 45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38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3명, 한국인터넷진흥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각 9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각 6명, 한국콘텐츠진흥원 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비정규직 직원 수는 본격적으로 나주 이전이 시작된 지난 2015년부터 2453명, 2016년 2483명, 2017년 2223명, 2018년 1323명, 2019년 1814명 등 오르내림을 거듭하고 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비정규직 직원 수는 332명(13.5%) 줄어들었다.

혁신도시 기관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균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전환비율은 한 해 동안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목표 수에 실제 전환한 실적을 대비해 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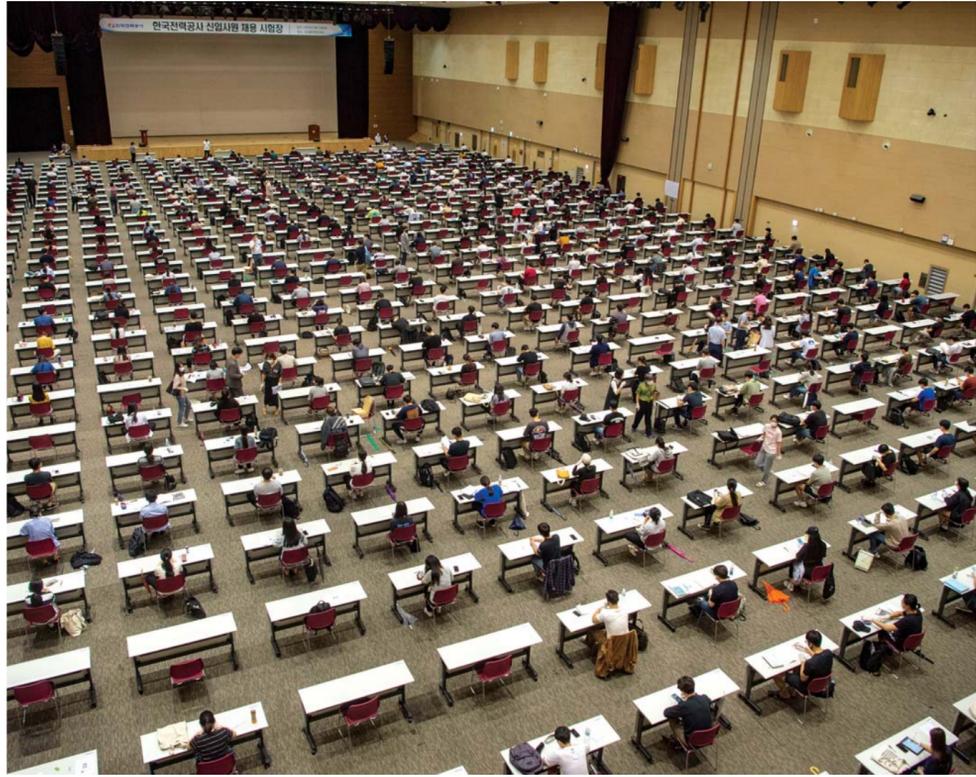
자사 소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2016년 148%, 2017년 257%, 2018년 344%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단 지난해와 올해 1분기에는 정규직 전환 실적이 없었다.

자사 소속 외 비정규직 전환 비율도 해마다 오르고 있다.

지난 2015~2016년 소속 외 비정규직 전환 실적은 '0'에 머물렀지만 2017년 53%, 2018년 92%, 2019년 356% 등 상승폭을 키워왔다. 올 1분기에는 한전만 683명의 소속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운 가운데 2315명을 실제 전환시켜 338%의 전환비율을 기록했다.

한편 통계청이 공개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비정규직 비율은 전년보다 1.5%포인트 오른 37%, 전남은 2.6%포인트 상승한 39.1%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전년보다 3.4%포인트 오른 36.4%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채용시험도 거리두기  
지난 13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신입사원 채용시험에서 응시자들이 간격을 두고 지정석에 앉아 있다. 이날 시험은 총 1600여 명이 치렀다. /김진수 기자 jeans@

### 직원을 둔 자영업자 광주·전남 11개월 연속 줄어

광주·전남지역에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11개월 연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광주 4만6000명·전남 4만2000명 등 8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000명 감소했다.

광주·전남지역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6월(-2000명)부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올해 1월에는 감소폭이 1만2000명으로 2월(-1만2000명), 3월(1만1000명), 4월(-1만명) 등 감소폭이 부쩍 커졌다. /백희준 기자 bhj@

### 로또복권 (제1915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	6	11	13
2	6	11	13
22	37	14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518,640,500	6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5,851,437	68
3	5개 숫자일치	1,444,434	2,436
4	4개 숫자일치	50,000	119,025
5	3개 숫자일치	5,000	1,966,167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